

# 남원 쌀 냉동 밥, 전국 인기

### 지난 6월말까지 250여톤 쌀 사용해 160만 봉 공급 제품 다양화 통해 생산량 현재의 2.5배 증가 예상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은 냉동 밥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 쌀 냉동 밥은 풀무원식품(주)과 남원의 (주)지엠에프가 남원 농업공단지에 제조공장 설립에 공동 투자해 지난 2월부터 생산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남원 쌀로 생산해 전국 대형마트와 유통점에 공급한 냉동밥은 모두 160만 봉으로 여기에 사용된 쌀은 250여톤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주)은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량이 현재의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60여톤 이상의 남원 쌀이 매월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엠에프도 가정 간편(HMR)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려 해외바이어들로 부터 호평을 받으며, 오는 9월에는 자사 브랜드 '올그루' 상표로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박남주 풀무원식품(주) 대표는 "남원 쌀의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내시장을 비롯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청정 남원에서 생산된 맛좋은 쌀로 지은 냉동밥이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냉동밥이 기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69억원여를 투입해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을 탈피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5회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섬진강다슬기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임실군 섬진강생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 청정임실서 '섬진강 다슬기축제'

20일~21일 섬진강생태체육공원

섬진강 상류의 청정지역인 임실 군민의 특별한 축제인 '섬진강 다슬기축제'가 열린다.

8일 임실군에 따르면 제5회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섬진강다슬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임실군 섬진강생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섬진강 다슬기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필봉농악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주요 행사로는 다슬기잡기, 다슬기끼기, 물고기잡기, 다슬기야요제, 워터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섬진강 다슬기 축제는 2일 동안 다슬기를 소재로 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다슬기잡기와 다슬기끼기, 다슬기야요제 등은 당일 현장등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섬진강다슬기축제위원회 홍성주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섬진강에서 다슬기도 잡고, 다슬기도 맛보고, 흥겹게 행사도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체험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군수는 "섬진강 상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청정 1급수에서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근의 많은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이 가족, 연인, 지인분들과 함께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당뇨 치유 프로젝트 효과 입증

### 지난 5월 25명 프로그램 참가... 유익군 6.6% 증가, 유해군은 38.2% 감소

순창군이 추진한 '당뇨 치유 프로젝트'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몸 속 장내 미생물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5월 바른 먹거리 이계호 교수와 공동으로 '당뇨 치유(休)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존에 군이 추진한 당뇨 관련 프로그램이 사전예방이 주 목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프로젝트는 치료와 치유에 주안점을 뒀다. 참가자 또한 당뇨 질환을 가지는 있는 교육생을 전국에서 모집해 최종적으로 25명의 교육생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료전후 몸 속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고자 참가 전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을 채취했다.

이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5박 6일 일정으로 군이 준비한 착한밥상 김영희 대표의 치유음식부터 당뇨이론교육, 당뇨식 요리실습을 통한 식습관 개선, 정서안정 및 우울증 감소를 위한 텃밭 만들기, 밸런스 트레이닝, 산림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한 군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미생물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은 참가자 평균 6.6% 증가, 클로스트리디움(유해균)은 평균 38.2% 감소라는 놀라운 성적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한국의과학연구원도 "5박 6일간의 단기

간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면서 "치유음식과 신진기능 회복, 스트레스 감소, 운동 등의 전신건강 향상이 유익균 증가와 유해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군도 향후 9월에 있을 2차 프로젝트 진행과 더불어 이계호 교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관련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군민들의 의로비 절감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2차 프로젝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063-650-1527)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일품공원, 분수대 활짝

### 9월 30일까지 가동

순창을 일품공원내 분수대가 본격 가동되며 일품공원을 찾는 순창군민이 많아지고 있다.

순창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일품공원내 분수대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일품공원 인근 지역부터 먼 단위 군민들까지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식히러 일품

공원을 찾고 있다. 군은 분수대를 이용하는 연령이 영유아나 초등학생 등이 대다수라 수질관리에도 특히 신경 쓰고 있다.

수소이온농도와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영장 수질관리기준 수준에 적합토록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관리하는 운영방향을 세웠다.

여기에 매주 월요일마다 분수대 운영을 잠깐 멈추고 전문소독업체를 이용한 청소도 진행해 군민들이 안심하

게 이용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분수대 바로 옆 소공원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도 군민들을 일품공원으로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분수대를 찾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함께온 부모들은 관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준비한 버스킹 공연에 잠시나마 마음을 여유를 느낀다.

지난 4월부터 매월 격주로 열리는 문화공연은 관내 50여개 동호회가 돌아가며 합향댄스부터 라인댄스, 풍물공연, 우쿨렐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일품공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최대 300만원까지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11종 질환에서 19종 질환으로" 확대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확대되는 지원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박출산, 양수과다 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신청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출산지원담당(063-620-7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 보건소 공익의사 건강생활과장은 "이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매아리

#### 임실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임실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고객감소 등 이중고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이다.

특히 군은 최근들어 소액카드 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임실군청 경제교통과와 각 읍·면 사무소 및 임실시장 상인회에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새 기술 실천 워크숍

남원지역 농업발전과 신기술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회장 박준호)와 생활개선훈원시연합회(회장 유정례)는 8일과 9일 2일간 산내면 일성콘도에서 내빈과 회원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새 기술 실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농업·농촌을 이끌 핵심 지도자상 제시와 함께,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지역 리더로서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로 준비되었다.

일정은 첫날 이환주 남원시장과의 시장 소통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 바로알기, 자기 주도적 삶으로 나아가기 등 유망 강사진 특강과 농업현장의 진드기 감염 예방, 화합행사 순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은 과학영농실천 스마트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프리마켓 운영 등 농업인 사례발표와 지리산 허브밸리, 함파우 소리체험장을 순회하는 남원지역 문화탐방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이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산물 폭락으로 관심이 큰 상반기를 끝내고 활기찬 하반기 준비하는 재충전이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